

# 어린이 안전사고, 안전한 예방 전략 필요해

어린이는 발달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반면, 위험 인지능력이 미흡하고 신체 기능이 미숙하여 성인보다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달단계 및 발생장소 등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적절한 안전 대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요인 분석이 요구된다.

글\_ 최난주 팀장(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해마다 200여 명 가까운 수가 희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책입안자의 어린이 안전정책 마련 및 어린이를 둔 가정 및 관련 시설종사자 등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분석해 예방 전략을 짰다.

## 분석대상

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CISS를 통해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 0세부터 만 14세까지 연령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어린이 발달단계에 따른 세부 연령대를 0세 '영아기', 1세~3세 '걸음마기', 4세~6세 '유아기', 7세~14세 '학령기'의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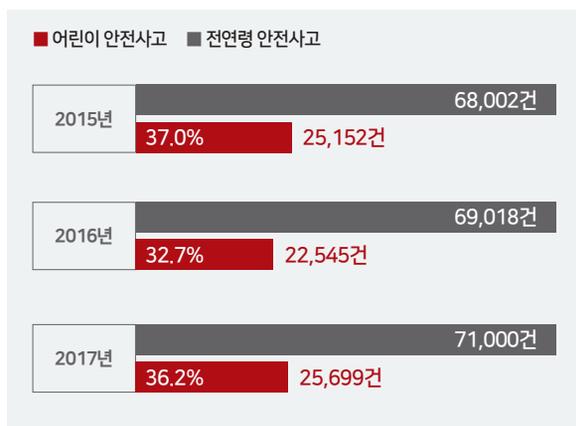
### 전 연령대 중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 30% 이상

2017년 한 해 동안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년도 보다 14% 증가해 전 연령 안전사고의 36.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총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13.1%)\* 및 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27.3%)\*\*에 비해 높아 우리나라의 어린이 연령대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2017년)

\*\* 미국 NEISS(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미 위해감시시스템) 국가 통합통계(2016년)

###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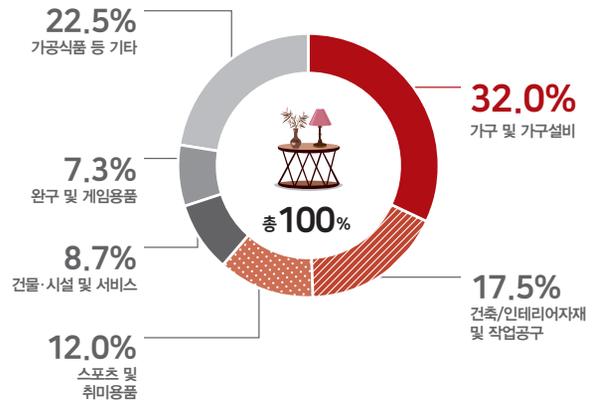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68.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 연령층 안전사고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47.6%)과 비교했을 때에도 20%p 이상 높았다. 이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전략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소와 대상 역시 일상생활공간인 '가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고 유발 품목으로는 '가구 및 가구 설비'가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 공구(17.5%)', '스포츠 및 취미용품(12%)', '건물, 시설 및 서비스(8.7%)', '완구 및 게임용품(7.3%)', '가공식품(4.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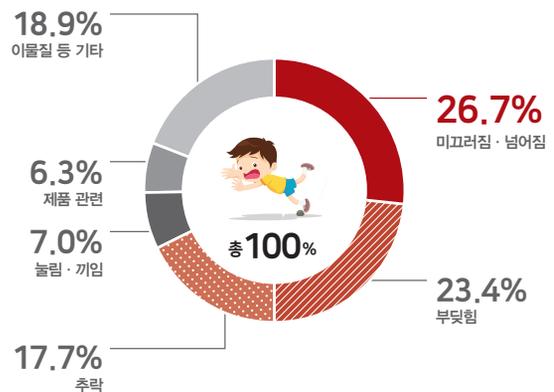
###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품목(2017년)

[단위: %]



### 사고 유형별 현황(2017년)

[단위: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놀이·끼임' 등 물리적 충격 사고가 75% 가까이로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손상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무려 63.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팔 및 손', '둔부·다리 및 발'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외상성 뇌 손상이나 안면부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발달단계별 사고특성 차이

발달단계별로 위해품목을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침실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걸음마기와 유아기에는 '바닥재'가 각각 14.5%, 10%, 학령기에는 '놀이터 시설'이 1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으로는 '추락',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 사고가 모든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중 '추락' 사고는 영아기에서 절반 가까운 48.9%를 차지하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비중이 작아졌는데 영아기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침대에서 발생했다.

### 발달단계 높아질수록 안전교육 중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어린이 발달단계 중 활동 범위가 가장 좁지만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이 미약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 및 순간 대응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침대에서 추락하는 등 환경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침대 등 가구 주변에 안전난간, 충격완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호흡기가 막혀 질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너무 폭신한 침대나 이불은 피해야 한다.

걸음마를 시작하면 걷고 뛰는 운동능력은 향상되지만 여전히 신체 무게중심이 높고 근육발달이 완전하지 못하여 가구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실내바닥과 가구 등에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약품이나 생활화학물질, 작은 물건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서 중독, 삼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유아기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수칙 및 예방법 교육이 가능한 시기다. 따라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활용과 일상생활과 연관된 직접 체험식 접근 등 유아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해주면 좋다. 학령기에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전략 수립 필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잦은 장소 중에서는 주택이 6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가정 등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에서의 사고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간과되는 일상의 모든 시설이 어린이에게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은 어린이의 행동반경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또는 완충재나 보호장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 추락사고 예방하기

- 침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베란다에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만한 의자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놓지 않는다.



#### 화상, 중독, 삼킴·흡인 사고 예방하기

- 뜨거운 주방기기, 생활화학제품, 의약품, 작은 부품 등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어린이는 소량의 유해물질 노출에도 중추신경계 마비나 내분비계 교란 등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물리적 충격도 큰 외상이 될 수 있는 등 취약성을 띠고 있어 어린이 대상 제품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 자체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제품 사용관점'의 안전 관리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즉, 종래의 제품 결함이나 기능 오작동이라는 범위에서 점차 사용자의 '예상 가능한 오사용'에 대한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 가능한 오사용'이란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발생한 사고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설계 시 어린이가 주 사용자인 제품의 경우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안전설계가 필수적이다.